

해남군, 스탬프 여행하면 '세계땅끝여행'을 쓴다

체류형 관광객 확대 위해 '땅끝에서 세계로' 스탬프투어 운영 오는 12월 중 1팀 추첨 500만원 상당 세계땅끝여행권 증정

해남군이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땅끝에서 세계로' 해남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내놓았다.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땅끝에서 세계로' 스탬프 투어는 참가자 추천을 통해 특별경품 세계땅끝여행권을 지급한다.

세계땅끝여행권은 세계의 땅끝 포르투갈 최서단 호카곶을 경유, 여행할 수 있는 500만원 상당의 여행권으로 오는 12월 중에 1팀(2명)을 추첨한다.

세계땅끝여행권은 해남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해남에서 열리는 축제를 포함 관광지 4곳 이상 방문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축제현장에서 배부된 오프라인 스탬프북에 직접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축제는 달마고도힐링축제를 비롯해 어린이 공룡대축제, 송호해변축제, 명랑대첩축제, 미

남축제 등이다. 또한 관광지는 해남의 대표관광지인 고산윤선도유적지와 두륜산케이볼카, 두륜산 대홍사, 두륜미로파크, 4est수목원, 세계의땅끝공원, 땅끝전망대,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해남공룡박물관, 우수영관광지, 명랑해상케이볼카, 우수영문화마을 등 12개소이다. 축제장 1곳 이상을 포함해 총 4곳을 방문 후 도장을 찍어 응모하면 된다. 대상은 관외에서 해남을 방문한 관광객이다.

세계땅끝여행권 외에도 두 차례 추첨을 통해 해남미소상품권과 농수특산물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며, 스탬프 투어 운영 기간중 스탬프 투어 참여 인증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7월, 12월 말 해남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 상품은 관광지 체



유시공간을 늘려 해남 생활인구 확대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해남만의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통해 해남이 땅끝 브랜드로 차별화된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많은 분이 해남을 방문하시어 땅끝의 매력에 매료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송준표 기자

장흥군, 2024년도 인구감소 지역대응 시행계획 확정

장흥군은 26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위원장 이천영) 심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2022~2026년)에는 '희망플러스 장흥'이라는 비전 아래, 4개전략과 16개 실천과제, 23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지난해 시행계획에는 ▲문흥 빛의 거리 조성(40억원),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22억원), ▲군민이 함께하는 여흥마을 조성(30억원), ▲전세대 가족커뮤니티센터 조성(100억원), ▲힐링문흥 가족친화환경조성(30억원)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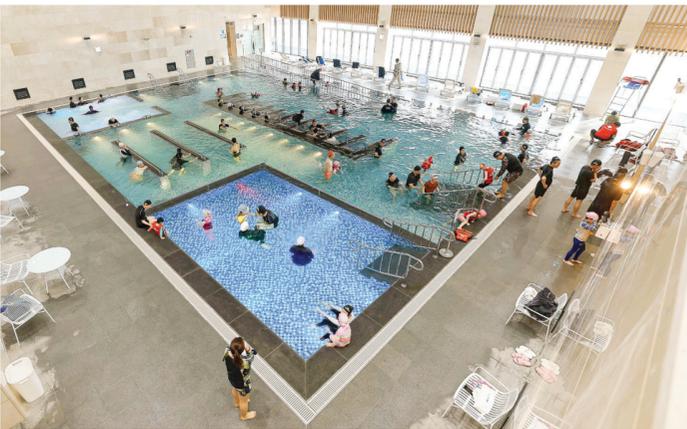
올해는 ▲산림치유형 위케이션 조성(20억원),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야간경관 개선(50억원), ▲청년자립학교 스마트팜 조성(2.5억원), ▲청소년 힐링로드 조성(7.5억원)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이다.

심의회에서는 과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평가 뿐 아니라 지향하여야 할 인구정책 방향으로 정주인구 확대와 더불어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는 "대응계획을 만들어 감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성이 큰 정책 위주로 계속하여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 해양치유센터, 힐링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다 개관 이후 1만 7천여 명, 매주 1천2백여 명 다녀가



지난해 11월 24일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치유와 힐링을 위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2월 28일 기준 1만 7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매주 평균 1천2백 명이 찾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예약이 팍 찰 정도이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해양치유 시설로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완도

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딸라소플,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스톤 테라피 등 16개의 테라피 시설을 갖췄다.

딸라소플에서 각종 수중 운동과 수상 마사지 등을 하면 피로 회복, 통증 완화,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되며, 명상 풀은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및 불면증 해소, 머드 테라피는 독소 배출과 피부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

해양치유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곳에서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본격 운영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전문 인력 23명을 지역 출신으로 채용하였고, 해양치유 해설가 20명을 양성하여 단체 관광객 방문 시 해양치유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지역 대표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 수산물 축제 등이 시작되면 해양치유센터를 찾는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군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 홍보·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현대삼호중공업, 건강관리협회,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 치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해양치유센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3일까지 운영한 후 잠시 휴관을 거쳐 3월 20일 재개관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거점으로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 공공 치유시설을 활성화시키고,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아우르고 섬마다 지닌 치유 자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완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치유의 섬'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송준표 기자

강진군, 임(林)과 함께 3일 살기 시범운영 '성공적'

강진군 산림과는 지난 26일 주작산자연휴양림에서 '임(林)과 함께 3일 살기'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林)과 함께 3일 살기란, 주작산휴양림에서 2박3일 동안 숙박하며 숲속 트레킹 및 테마별 현장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3월부터 6월,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운영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시범운영은 광주, 창원, 대구, 평택,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해 총 16명이 참여했다.

1일차인 26일은 입교식을 한 뒤, 숲속 트레킹 및 숲체험을 하고, 버스킹 공연 진행으로, 숲의 낭만을 선사하며 참가자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2일차인 27일은 다산초당, 백련사 등 백송을 거닐며 심신을 치유하고, 청자컵 조각 및 한식 문화 체험 등 강진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3일차인 28일은 백운동원림을 탐방하며 설록다원을 감상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제4회 성인문해교육 졸업식...늦깎이 졸업생 10명

진도군이 지난 27일 진도여성플라자에서 제4회 성인문해교육 졸업식을 개최했다.

성인문해교육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지정한 초등학교학력인정 3년 과정으로 이번 졸업식에서는 임희면 동구 문해교실의 늦깎이 졸업생 10명을 배출했다.

올해 졸업생 중 최고령자는 만 83세의 이민숙 어르신(진도군 임희면 백동리)으로 가장 많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배움에 임해 졸업의 결실을 맺었다.

졸업식에 참석한 가족, 마을주민, 성인문해교육 관계자들은 어르신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했다.

초등학교학력인정 과정 졸업장은 어르신들이 지난 2021년 갑자기 닥친 코로나19의 위험한 시기에 입학해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은 결과에 더욱 가치가 빛난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우흥섭 진도부군수는 "나이를 막을 수 없는 배움에 대한 열정에 진심을 다한 어르신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오늘의 졸업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보람찬 여생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